

[사회]

워드 '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'



지난 5일 미프로풋볼(NFL) 슈퍼보울에서 한국계 혼혈인 하인스 워드가 우승과 함께 MVP의 영광을 안자 국제결혼 여성단체인 한미여성회 총연합회 실비아 패튼 회장이 국제결혼한 여성으로, 또 혼혈아 부모로서 이날 느낀 감동을 편지로 보내왔다.

하인스의 엄마는 그날 밤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쏟았을까요.

아들이 세계 최고 선수가 된 기쁨과 지난 30년간 맺힌 한이 뒤엎킨 격한 감동이었을 겁니다.

한참 이쁜 짓하던 아들을 빼앗긴 뒤 8살때야 비로소 품에 안은 그날의 감격 못지 않았을 거예요. 나도 지난 일요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. 목이 메이고 가슴이 뭉클해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.

특히 하인스가 한국계 혼혈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.

아마도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과 그 사이에 태어난 혼혈자녀들 모두가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. 눈이 작은 동양 엄마를 부끄러워 했던 사춘기 아들. 이쪽도 저쪽도 아닌 변방에서 방황했던 아들.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 아들을 부둥켜 안고 서러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야만 했던 엄마.

하지만 그 아들은 엄마의 뼈를 깎는 헌신적인 사랑속에서 위대한 선수 훌륭한 사람으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섰습니다.

"엄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다"며 평생을 갚아도 절대 어머니의 사랑을 갚을 수 없다는 아들의 말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. 이처럼 내면적으로도 슈퍼 MVP

감인 아들을 키운 하인스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요.

한국에서 국제결혼했다고 당했던 멸시와 냉대 또 이혼의 아픔과 지독한 가난을 이겨내고 아들을 키운 그녀에게 마음 속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.

내 남편을 비롯하여 많은 미국인들은 그가 한국계 혼혈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. 이번에 비로소 알게됐죠. 하인스는 한국을 알리는 대사역할도 훌륭히 수행해낸 것입니다.

국제결혼여성 그리고 혼혈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국제화시대의 외교관으로 내가 살고있는 이 나라의 주인으로 보아주길 바랍니다. 그들에겐 남다른 아픔이 있습니다. 우리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그 아픔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주어야 할 것입니다.

실비아 패튼 < 한미 여성회 회장 >

신문발행일 :2006. 02. 08

수정시간 :2006. 2. 7 23: 0

© JoongAngUSA.com 미주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.